

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 <9월 20일>

시편 126(125), 1-2-3. 2-3. 4-5. 6(© 5)

손상오 신부 작곡

(후렴) 눈 물 로 씨 뿌 리 던 사 람 들 환 호 하 - 며 거 두 리 - 라

1.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주	실 때,	우리는 마치	꿈꾸는듯	하였	네.
2. 그때 민족들이 말하	였	네.	"주님이 저들에게	큰일을	하셨구 나"
3. 주님, 저희의 귀양	살 이,	네겔땡	시냇물처럼	되돌리소	서
4.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	람 들,	_____			

D.S.

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	치 고	우리 혀에는 환성이	가득	찾	네.
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	하셨기	에	우리는	기뻐하였	네.
눈물로 씨뿌리던 사	람	들	환호하며	거루리	라.
_____		곡식단 안고	환호하며	돌아오리	라